광주·전남 기업들 "내년 1분기 경기 여전히 춥다"

광주·광양상의 조사 경기전망지수 기준치 크게 밑돌아

내수부진·美 양적완화 축소 대내외 변수 경영상황 악화 겨울 비수기 실적 부진 전망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은 내년 1분기에도 체감경기가 하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동절기 비수기가 겹치면서 내년 초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상공회의소 및 광양상공회의소가 내놓은 '2014년 1분기 제조업 기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의 120개 제조업체의 내년 1분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 기준치=100) 전망치는 지난 4분기(82) 와 비슷한 '87'로 집계됐다. 광양 지역 100개 제조업체는 '73.9'로 집계돼 전 분기(110.3)보다 크게 하락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지역 기업 가운데 전 분기보다 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31.1%(전분기 37.8%)로, '호전'된다고 예상한 업체 17.6%(전분기 20.2%)보다 많았으며 경기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51.3%(전분기 38.7%)를 차지했다. 광양 인근의 기업들은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이 응답업체 중 13%에 불과했으며 전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8%, 경기 악화를 예상한 기업체는 39.2%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내년 초 경기전망이 어두운 것은 경영에 부담이 되는 대내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통상임금범위 확대, 철도파업 등 대내외적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활동 및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업규모와 형태별로 보면 수출기업(122)이 기준치를 넘어서며 경기호전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대기업(80)은 '중소기업'(88) 보다도 1분기 경기를 불투명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08)과 '기계장비'(100)가 기준치를 웃돈 반면, 나머지 업종은 비수기에 따른 부품수요 감소 및 관련 산업의 업황 부진에 경기침체 장기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체감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기업이 자금사정(광주 34.2%·광양 33.3%)을 꼽았고, 이어 원자재 조달 여건(광주 14.2%·광양 20.8%)을 들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경기부진 장기화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장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기회복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환율변동과 중국경제상황, 통상임금 등 대내외 변수의 향방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전남기업 내년 1월 자금사정도 암울

한은 광주전남본부 조사

내년 1월 광주·전남기업의 기업경기와 자금사정이 여전히 기준치를 밑도는 등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사업체(종사자수 5인 이상)중 550개(응답 480개)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는 71로 전달대비 4포인트, 내년 1월 업황전망BSI는 74로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업황BSI는 기준치 100보다 클수록 장래 상황이 좋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을수록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 1월 업황전망BSI가 전달보다 오르긴 했지만 기준치 한참 아래다.

광주·전남지역 기업의 자금사정 BSI는 85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했으며 2014년 1월 자금사정전망BSI는 89로 전달과 동일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년 내 운세는… 지난 28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에서 고객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이 준비한 무료 타로카드 이벤트 현장에서 신년운세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2013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 6명 선정

광주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2013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 6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수상자는 ▲㈜인아 백희종 대표 ▲㈜골드텔 이재수 대표 ▲삼성스텐레스상공㈜ 안병열 대표 ▲㈜한국씨엔에스 나기수 대표 ▲㈜옵토닉스 이용범 대표 ▲현대로오텍㈜ 노정규 대표 등이다.

이들은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율 등 기업 건실도와 고용창출, 노사화합,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환경개선,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기업인들이다.

시는 이들에게 2년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기술지원, 경영안정자금 추가 이차보전 및 한도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중앙회 '올해의 모범부서'

성과평가 2년 연속 선정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기관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올해의 모범부서'로 선정됐다.

29일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평가한 '2013 성과평가'에서 2개 지역본부를 선정하는 '올해의 우수부서' 표창에 2년 연속 선정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정책건의사업'의 경우 2012년도 대비 144%나 증가한 44건을 발굴하고 25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 광주시 및 전남도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사업(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전남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지자체 협력사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영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내년에도 '손톱 밑 가시' 같은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본부장은 내년 1일1일자로 단행한 중기중앙회 인사에서 이사 대우로 승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대차그룹 임원 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 27일 부사장 승진자 14명을 포함해 419명에 대한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직급별로는 부사장 14명과 전무 36명, 상무 75명, 이사 146명, 이사대우 144명, 수석연구위원 2명, 연구위원 2명 등이다. 승진 규모는 지난해(379명)에 비해 10.6% 늘어났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인사라고 그룹 측은 소개했다.

김종웅 기아차 광주공장장(전무)은 기아차 내에서 유일하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미티드' 광주 광산구에 첫 직영점 오픈

'2535세대'를 위한 메트로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미티드(대표 한철호)가 최근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에 흑석점을 오픈〈사진〉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난 9월 론칭한 도심형 아웃도어 브랜드 엠리미티드의 첫 단독 직영 매장인 광주 흑석점은 일본의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사토 오가사와라(Masato Ogasawara)가 SI(Store Identity·매장 이미지) 매뉴얼 작업을 전담했다. 1, 2층 330㎡(100여평) 규모의 공간에 행어와 테이블 등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배치했고, 원목 소재를 사용해 도심에서도 자연을 꿈꾸는 아웃도어 애호가들의 감성을 표현했다.

기능성이 강조된 '마운틴 아웃도어 라인'과 일상복으로서의 활용도에 무게를 둔 '어반 아웃도어 라인'을 각각 나뉘어 진열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게 했다.

엠리미티드는 대리점 위주의 단독 매장을 지속적으로 오픈한다는 목표로 이번 첫 직영 단독 매장 오픈에 이어 내년에는 단독 매장 약 135개, 밀레 매장 내 샵인샵 형태의 매장 약 50개 등 총 185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한편 엠리미티드 광주 흑석점은 매장 오픈을 기념해 오는 1월 12일까지 모든 구매 고객 대상 양말을 증정하고 시크릿 박스 이벤트와 함께 구매 금액별로 다양한 사은품(30만원 이상 구매 시 패딩조끼, 20만원 이상 구매시 목걸이형 카드 지갑, 15만원 이상 구매 시 비니, 10만원 이상 구매 시 콤팩트 타월 또는 멀티케이스)을 준비했다. 문의 062-951-48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파트 공사 선정 내년부터 전자입찰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각종 아파트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K-apt를 개편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ID 발급을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주택 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하면 응찰, 입찰 마감, 입찰 개봉, 낙찰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K-apt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주택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되고,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이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57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5	12	14	32	34	42	1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2,796,466,575	5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54,195,089	43
3	5개 숫자 일치	1,442,966	1,615
4	4개 숫자 일치	50,000	80,303
5	3개 숫자 일치	5,000	1,326,822